

오피니언

다산포럼

정지창



몇 해 전의 일이다. 교양과목 강의를 하는데 뒤쪽에 앉아 강의시간 내내 옆의 학생과 소곤소곤 잡담을 하는 한 학생이 눈에 거슬러 참고 참다가 마침내 화를 터뜨리고 말했다. 자네 때문에 강의에 집중이 안 되니 그럴 거면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 심하게 야단을 쳤다. 그 학생은 고개를 꼭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런데 나는 뒤늦게 큰 실수를 한 것을 알고 가슴을 쳤다. 내가 야단친 학생은 우리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옆 자리의 중국 유학생에게 강의 내용을 설명해주느라 계속 소곤소곤 얘기를 나눈 것이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잡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화를 낸 것이었다.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고 괜히 자존심이 상해서 웅크려 화를 부어 낸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즐거움과 수치는 반성하지 않는다

박사학위나 전문의 자격시험, 사법고시 같은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 분야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일수록 실수와 오판을 할 가능성은 더 높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런 전문가일수록 자신이 인간인 이상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앞에서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학생이나 환자, 피고의 말을 경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일반적으로 비리 재단의 복귀를 결정하여 학내 구성원 다수의 의사를 무

시하고 지역 시민들의 여론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처사를 보면서 전문가 집단의 오만과 횡포에 절망감을 느낀다.

G 20 정상회담의 경제효과가 월드컵보다 많은 수백 조이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제효과가 수십 조라고 나팔을 부는 경제전문가들, 원자력이 가장 깨끗하고 값싼 에너지라고 강변하는 원자력 과학자들, 공정보도를 외치면서 도청을 일삼는 언론들, 전문성을 방패 삼아 무오류의 자기 최면에 빠져 있는 전문가 집단은 결코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줄 모른다.

얼마 전 7년간의 한국 생활을 끝내고 위

도 몇 년을 산 그는 남한 전체 인구의 반이 몰려 있는 서울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경산에 살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눈을 가까이 두고 볼 수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봄철에 파릇한 모를 심어 한여름 맛과비와 무더위 속에 시퍼렇게 자라 가을에는 누렇게 익어가는 벼를 보면 늘 눈이 즐겁고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이다. 힘들고 짜증날 때 처침처럼하고 파릇파릇한 무논을 보며 희망과 위안을 찾았더니, 아무 거리낌없이 무지막지하게 눈을 까뽀고 집을 짓거나 길을 내는 포크레인의 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녹록한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짜증을 돋우는 장마철의 무더위 속에서, 김수영 시인이 '절망'이라는 시를 지은 심사를 꼼꼼 해아려보다.

동경이 풍경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공평이 공평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여름이 여름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속도가 속도를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졸렬과 수치가 그들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것처럼

바람은 뜰 데에서 오고
구원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고
절망은 끝까지 그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다.

<영남대 독문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전남 공직 사정 전시·일회성 안폐야

광주·전남지역 공직사회가 때마침 '사정 한파'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분청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찰을 실시해 비위행위가 드러난 공직자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구속될 경우 직속 상급자에게도 연대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고강도 사정에 나섰다.

사·도의 이 같은 강도 높은 사정은 최근 잇따른 지역 공직자의 비리와 무관치 않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6급 직원은 업무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선물과 향응을 받았고, 시 출원기관인 광주문화재단의 한 직원은 100만 원어치의 관공물품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전남도청 6급 공무원 역시 지난 5월 사방댐 공사와 관련해 업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남해양수산과학원 6급 직원은 연구비를 횡령했다가 각각 구속됐다.

공직자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광역이나 기초단체, 그리고 직급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게 바로 공무원 비리다. 이는 공직자 비리가 구조화됐음을 의미한다.

공직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감찰이나 단속만으로는 안 된다. 그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공직자감찰과 부정부패 일소를 부르짖었지만 그때 뿐이고 돌아서면 '언제 그랬느냐'는 게 현실이다. 관행처럼 되풀이되는 공직사회의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면피용 감찰 등이 공직비리를 고질병으로 키워 왔던 것이다. 이번 사·도의 고강도 사정이 일회성이냐 전시성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공직사회가 정화되지 않고선 지역사회의 발전과 선진화는 요원하다. 따라서 부정부패에 연루된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는 원칙이 확립돼야 하고 이는 예외없이 적용돼야 한다.

사·도의 공직비리 근절 의지가 지역의 모든 공직사회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5공 핵심'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말이 되나

5·18단체들이 지난달 25일 사망한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5월 학살을 주도한 전두환 정권의 핵심 인물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대한민국의 수치"라며 강력히 철회를 요구했다.

우리는 5·18단체들의 이 같은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실 안씨는 군부질서를 어지럽힌 '하누끼' 소속으로 1980년 신군부 세력에 가담해 수경사 30경비단장과 공수여단장 등 요직을 거쳐 1988년 전두환씨 퇴임 때까지 경호실장을 역임한 5공(共) 군부독재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특히 5·18광주민중항쟁 관련자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강제진압을 통해 수천명의 광주시민들을 살상한 군부의 지휘선상에 있었던 인사로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사실을 부인키

어렵다. 안씨는 또 일해재단 비리 사건에 관여하면서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거둬들인 혐의로 지난 1996년 구속돼 물의를 일으켰다.

5·18단체들이 "이런 인물을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면 역사적 죄를 범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관계당국에 있음을 존중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안씨에 대한 안장 여부는 국가보훈처가 1차 심사 결과 '보류' 판정을 했지만 2차 심사를 다시 진행해 결정한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반인륜적이지 비민주적 인사로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면 국가의 정체성 상실은 물론 국민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립묘지는 애국자와 국가발전에 평생을 헌신한 분을 중에서도 범범 사실이 없는 국가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안장되는 곳이다. 5·18 영령과 광주시민, 그리고 국민들이 눈 부릅 뜨고 지켜보고 있다.

NGO 칼럼



김성훈

학생들은 학기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얼른 방학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나 막상 방학이 시작되면 맘껏 놀고 싶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또다시 무언가 배우기 시작한다. 방학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원으로 내몰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

방학이 될 때마다 제대로 된 여가 시간도 없이 맹목적으로 공부만 해야 했던 우리 청소년들에게 휴식시간을 주면 무엇을 할까? 최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청소년

특별한 여름방학을 선물하자

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여가 활동은 컴퓨터 게임과 TV시청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이 방학과 같이 여가가 생기면 가장 해보고 싶은 활동은 여행이었고 문화예술 관람활동, 스포츠 활동, 취미활동도 하고 싶어했다.

미래 글로벌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문화적 감수성, 창의성, 더불어 사는 능력이다. UN 교육위원회는 21세기 글로벌 사회 학생들이 갖추어야 하는 학습능력(Learning Skills)을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의사소통, 협동심, 창의성, 자기 주도성, 사회적 책임, 정보 매체이해 등이라고 하였다. 이런 학습은 지식위주의 암기 교육만으로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이다. 미국의 교육은 동가이자 철학자인 존 듀이는 청소년 시기 경험학습을 강조하면서 "모든 학습은 경험에 의해 확실히 진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청소년들에게 경험학

습은 스펙을 쌓기 위한 도구로만 존재하는 것 같다. 학업성취도를 측정하는 국제비교 조사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는 상위권에 속하지만 학습 흥미도, 동기수준, 자신감은 하위권이다. 즉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주당 학습시간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무려 1주일에 16시간이나 많은 교육환경에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제 우리 청소년에게 평소 공부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방학을 이용해서 그간에 하지 못했던 특별한 방학의 기회를 주자. 올 여름방학이 청소년들에게 자기개발 활동, 신체단련 활동, 탐험활동, 봉사활동 등으로 자신의 마음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살아있는 교육을 배우고 체험하는 기간으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우리 청소년들은 건강한 여가활동을 보내

는 방법을 아직 잘 모른다. 부모들이 청소년들에게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먼저 예능 프로그램인 '남자의 자격'처럼 청소년 시기 '꼭 해보아야 할 일 30(?)가지'를 찾아보고, 우리 아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리고 방학기간 동안 NGO 단체 등에서 제공해주는 이 특별한 프로그램을 꼼꼼하게 찾아보자.

도시에서 아스팔트만 보고 자란 아이들이 바다, 들, 산을 경험하는 자연체험학습,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교류캠프, 미션이 있고 도전 경험을 쌓는 모험활동, 독서나 문화재 답사활동, 지역사회 참여 봉사활동, 적성과 취미에 맞는 자기개발 활동, 신체단련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저렴한 프로그램들도 많다. 아이들과 함께 여름방학 활동을 선택하는 시간부터 참교육은 시작된다.

방설이지 말고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여름방학을 꼭 선물하자. 우리가 살면서 배워야 하는 삶의 지혜를 스스로 터득할 테니까 말이다.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소장>

기고



홍정식

통합과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가 불신을 일으키고 국민 간·지역간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있다.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영호남의 지역갈등 문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지지세력 간의 분열 문제, 지방선거나 각종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파벌이 형성되어 깊은 상처로 남거나 갈등으로 몸살을 앓아오기도 한다.

이러한 선거의 역기능 때문에 선거 무용론을 주장하거나 선거 때는 유권자의 무관심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선거의 두 얼굴

민주정치에서 정치적 결정권은 어느 특정 개인이나 지배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있다. 국민의 의사는 선거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정치는 선거에서 시작되며 선거에 의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 꽃이며 민주정치의 필수불가결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선거가 민주주의 꽃인 좋은 선거가 되기도 하고, 선거 후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나쁜 선거가 되기도 한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 좋은 선거는 민주주의 꽃으로 피어나지만 나쁜 선거는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나쁜 선거는 어떤 선거일까?

첫째, 가장 나쁜 선거는 돈 선거다. 유권자의 참정권을 매수하는 것이다. 선거자금 이 들어가지 않는 선거는 없다. 선거에 있어서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양성화된 투명한 비용이 있는 반면, 음성적으로 사용하는 검은 자금이 막대하다고 한다. 음성적으로 사용된 검은 돈은 부정부패의 악순환이 되기 하며 유권자가 정치인을 불신하고 선거 결과가 쉽게 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둘째, 혈연·지연·학연 등 연고주의선거다. 대선에서 영호남, 수도권, 충청권으로

나누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선거를 이용하여 지역주의의 폐단이 남기도 하며, 특정학교 학벌, 종친회 등이 개입하는 연고주의 선거는 민주주의를 발전을 저해하는 나쁜 선거 모습들이다.

반면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좋은 선거는 어떤 선거일까?

첫째, 추진력과 리더십, 정치적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 대표로 선출되도록 하는 인물 중심의 선거가 좋은 선거라 할 수 있다.

둘째, 후보자나 정당은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공약선거를 해야 한다.

2012년 4월에 국회의원선거, 12월에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내년에 실시하는 양대 선거에서는 좋은 선거와 나쁜 선거가 공존하는 두 얼굴의 선거가 아닌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깨끗한 공명선거를 실시하여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어야겠다.

<영남군 선거관리위원회>

無等鼓

한여름 햇볕이나 배꼽티로 한껏 멋을 내는 여성들이 많다. 무더운 날씨 탓도 있지만 쪽 빠진 몸매를 자랑하고 싶은 '노출증'도 한 몫 거들어 여름의 거리는 현란한 패션쇼 무대가 된다.

이렇듯 여름은 노출의 계절이지만 율하는 한 술 더 떠 아예 옷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스타일이 유행이다. 이를 붙여 '하의실종', 험랄한 티셔츠에다 매우 짧은 아래 옷으로 언뜻 보면 야광이라는 아무 것도 입지 않은 상태로 착각하기 쉽다. 보기에 민망할 정도이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은 유행에 뒤질 세라 너도나도 하의실종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노출은 성범죄를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름 맨살을 드러낸 여성을 보았을 때 충동적인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고, 실제 통계에서도 이를 반증한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른바 '슬릿워크'(Slut Walk) 시위다. 슬릿워크는 올해 초 캐나다에서 시

작됐다. 토론토에서 한 경찰관이 대화 강연 도중 "여성이 성범죄의 희생자가 되지 않으려면 '헤븐 계집'(Slut)처럼 입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에 항의하고자 생겨났으며 곧 세계 곳곳으로 확산됐다.

슬릿워크는 여성의 야한 복장이 성범죄의 원인이 아니라는 뜻을 알리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부러 여성들이 몸에 꼭 끼거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행진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6일 서울 도심에서 슬릿워크가 열렸다. 슬릿워크 참가자들은 자유롭게 입을 권리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를 외쳤다.

물론 옷을 어떻게 입느냐는 표현의 자유다. 그러나 민망하다 못해 고개를 돌렸을 때 충동적인 성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고, 실제 통계에서도 이를 반증한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른바 '슬릿워크'(Slut Walk) 시위다. 슬릿워크는 올해 초 캐나다에서 시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슬릿 워크'



애완견과 함께 등반 댄 새·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등산을 할 때 산에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적잖게 본다. 그러나 산에 개를 데리고 갈 경우 자칫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 면 그대로 개를 데리고 올라가

얼마 전 호주에 갔다가 뉴사우스웨일스 대학의 연구 결과를 접하고 놀랐다. 그곳 연구 결과는 "개와 함께 산책을 할 경우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특히 새들의 서식지를 파괴해 종(種)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다.

연구팀은 그 증거로써 시드니 도심 주변

의 숲과 산림지대에서 관찰된 내용을 함께 공개했다. 연구팀은 90여 개의 숲과 산림지대를 개목걸이를 착용시킨 개와 그렇지 않은 개를 사람과 함께 10분간 거닐게 하는 한편, 동시에 숲으로부터 25~50미터 떨어진 곳에 서식하는 모든 새들을 조사해 각각의 경우가 어떻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실질적 개와 함께 산책 한 경우 목걸이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새 무리에서 40% 이상의 새들이 감소하였고 종의

다양성 역시 35% 이상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면에 동지를 틀고 서식하는 매추리과의 새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으며 실현지역 전체 생물종의 50%가 개와 함께한 산책으로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부터 개의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목걸이를 하든 안 하든 이 개들이 자칫 산에서는 야생동물에게 위협적인 존재의 역할을 함으로써 종의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애완견 기르는 사람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김명승·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제1간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내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다 지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